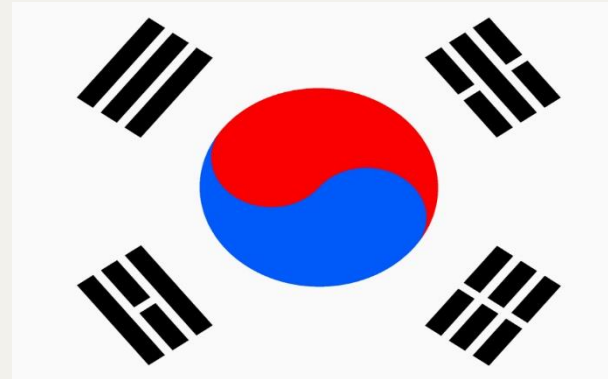


미얀마팀의 11월 보고서

미 지 존



오현진
신유정
안소연
홍세현
구건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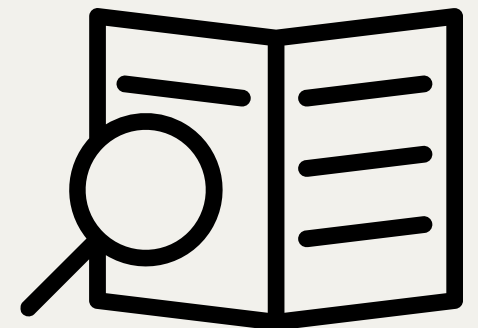
1 주차 01일 ~ 03일

2 주차 04일 ~ 10일

3 주차 11일 ~ 17일

4 주차 18일 ~ 24일

5 주차 25일 ~ 30일



1주차

중간격려 방문

임이경 간사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미얀마 투어~

중간격려 마지막 날, 이지윤 팀장님과 강경구 간사님은 아침 일찍 베트남으로 가셨다. 중간격려 마지막 날을 같이 보내지 못해서 팀원들 모두 아쉬워했다.

임이경 간사님은 밤 비행기로 출국하셔서 간사님과 함께 미얀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유정, 소연, 건모 단원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양곤YMCA에서 쉬기로 했다.

임이경 간사님, 현진,세현 단원과 알렉스는 보족아웅산마켓(보족시장), 쉐다곤 파고다와 공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중간격려 방문



Bogyoke aung san market : 보족 아웅산 마켓으로 미얀마 아웅산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음. 보족은 '장군'을 의미함
생필품, 선물 용품, 의류, 화장품, 보석, 금은방, 칠기, 과일 등 많은 가게들이 있음

과연 그들은 무엇을 살 것인가?!



중간격려 방문



Shwedagon Pagoda : 쉘다곤 파고다. 미얀마 옛 수도 양곤의 북쪽 언덕에 있는 거대한 불탑이다. 겉면은 전체가 황금으로 덧씌워져 있고, 내부에는 부처의 유품이 들어 있다. 세계적인 불교유적이다.



중간격려 방문



입구도 웅장하다...!



중간격려 방문



공원에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현진과 알렉스



2주차

11월 2주차

플리마켓

-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참여한 플리마켓!

방콕

- 공항
- 지하철
- 수영장
- 꽃밭
- 알파카

플리마켓



- 수공업으로 만든 가방, 파우치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에 참여했다.
YMCA 스탭들과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었다.



- YMCA에서 담당하는 부스 말고도 다른 플리마켓 부스들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방콕 - 공항1



- 출국 전 모습이다. 다들 비행기 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하고 있다.

방콕 - 지하철



- 태국 지하철 역에서 기념사진 찰칵~
- 무척 청결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었다



방콕 - 수영장



- 머물던 숙소 루프탑에 수영장이 있어서 열심히 물장구를 치며 친목을 다졌다.

방콕 - 꽃밭



• 산드라 간사님께서 가이드 해주신 꽃밭이다. 해바라기가 미얀마 단원들처럼 예쁘게 피어있었다.

방콕 - 왓아룬사원



태국의 유명한 사원 중 하나인 왓아룬 사원에 다녀왔다. 기가 죽을 정도로 웅장한 모습이었다.

방콕 - 알파카 공원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알파카가 살고 있는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

방콕 - 공항2



- 방콕에서의 시간들에 아쉬움 가득한 마음으로 사진 한 장 찰칵~
- 미얀마로의 복귀날

3주차

주제

식습관 교육

선정 배경

흘라인따야 보육원에서 아이들 점심 식사를 도우면서
음식을 씹지 않고, 돌아다니며, 손으로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 왔다.

교육 내용

흘리면서 먹지 않기
편식하지 않기
앞아서 먹기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기

포스터에 적힌 내용을 한 번 읽어보고, 점심시간 때 이를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띠 프로젝트 지역 조사 13일

아띠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각 보육 시설이 있는 마을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자 마을 사람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역은 아띠클럽 멤버들이 도와줬다.



설문조사지

1. 시설 필요성

- ① 마을 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시설의 형태

- ① 실외를 선호한다.
- ② 타이어 놀이터를 제시했을 때 동의하셨다.
- ③ 대신 시소, 그네 등을 추가하기를 원했다.

3. 안전성

- ① 유치원 내 마당에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치안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 ② 시설을 만들 때,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길 원했다.

4. 지속가능성

- 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관리하고 신경 써 주시겠다고 하셨다.

5. 기타 의견

- ① 건물 노후화 문제 제시.
- ② 원복의 필요성 제시.
- ③ 보육 시설 내 그림책과 같은 교구 보충 요청.

부산 YMCA 양곤 방문 14일

양곤 YMCA 에서 멤버십 캠페인이 열렸다.

이때 부산 YMCA 스텝 분들을 처음 보였고, 각 지역 YMCA 대표님들을 뵈 수 있었다.

우리는 각 지역 테이블에 배치 받아 대표님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을 하는 동안 양곤 Y 예산 사업 진행비, Y 회원들의 모금 현황들을 알 수 있었고, 경품 추천과 부산 YMCA의 사업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YANGON YMCA
65th MEMBERSHIP CAMPAIGN
3rd REPORT
14.11.2019



부산 YMCA 양곤 방문 14일

양곤 YMCA에서 부산 YMCA 스텝들을 위해 저녁 만찬을 준비했다.
부산 YMCA 스텝분들께서 저녁만찬에 대한 보답으로 노래도 불러 주셨다.
오랜만에 한국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부모님과 만난 것 같아 좋았다.



부산 YMCA 양곤 방문 15일

당일에는 부산 YMCA 사무총장님의 생신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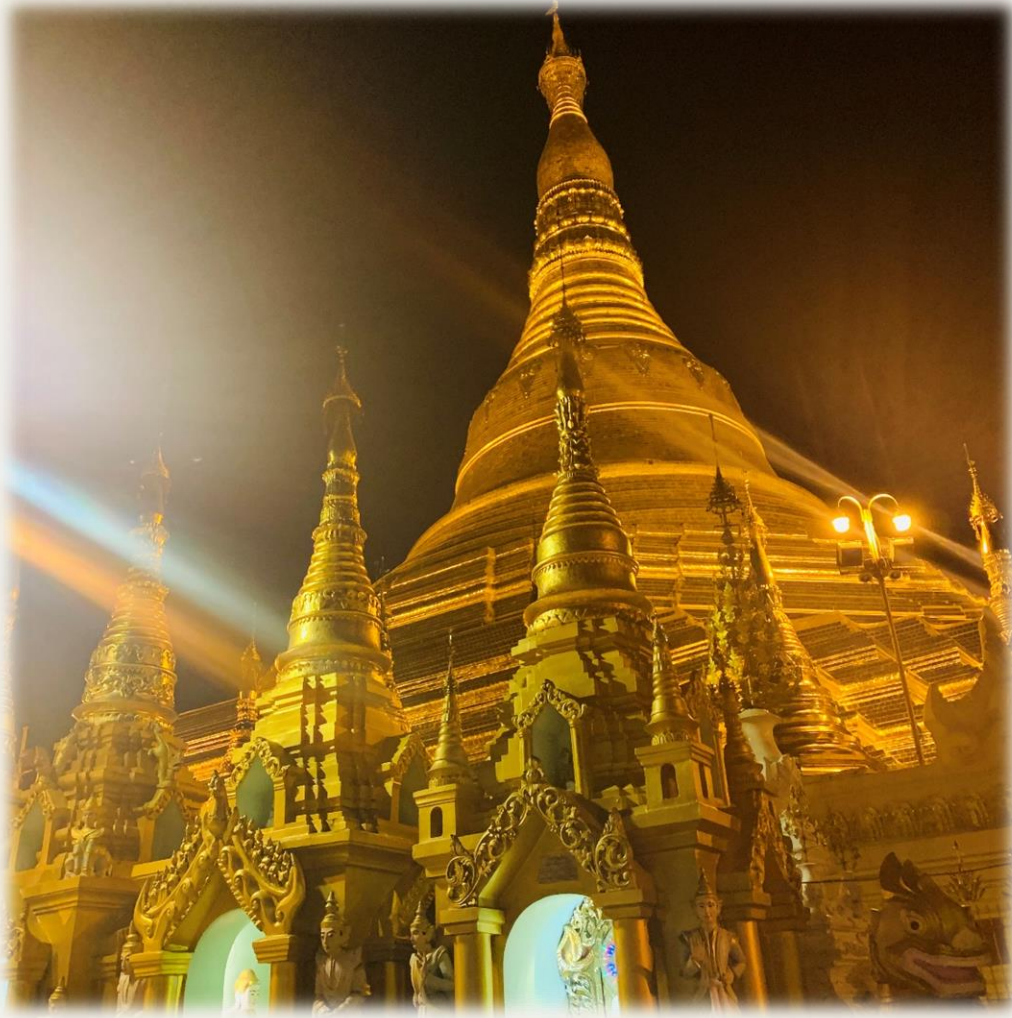
생신을 맞아 깜짝 파티가 진행되었고, 산드라 간사님과 부산 Y 다른 직원 분들께서는 미리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

라운아띠 단원들은 부산 Y 사무총장님을 위해 급작스럽게 공연을 하기도 했다.



부산 YMCA 양곤 방문 15일

저녁 식사 후 쉐다곤 파고다를 방문했는데, 저녁의 쉐다곤 파고다는 또 모습이 달랐다.



အိတ်ကလပ်, ပိပဲလ်စ် ပါး 16 ဝါ



ပီဝဲဝဲဝဲဝဲဝဲဝဲ ဝဲဝဲဝဲ ဝဲဝဲဝဲ ဝဲဝဲဝဲ



 **Natural World**
AMUSEMENT PARK
ENTRANCE TICKET

Time: 2019-11-16 14:54:46
Hotline: 098622246
Ticket Code: Xc+yTnQAAAP6

ဝဲဝဲဝဲဝဲဝဲ ဝဲဝဲဝဲဝဲဝဲ
can use only once



Mya Myint Zu



아띠클럽, 피플스 파크 16일



농구 최고기록 돌파 민기&현진



춤신(유정)춤왕

4주차

4주차 (지진,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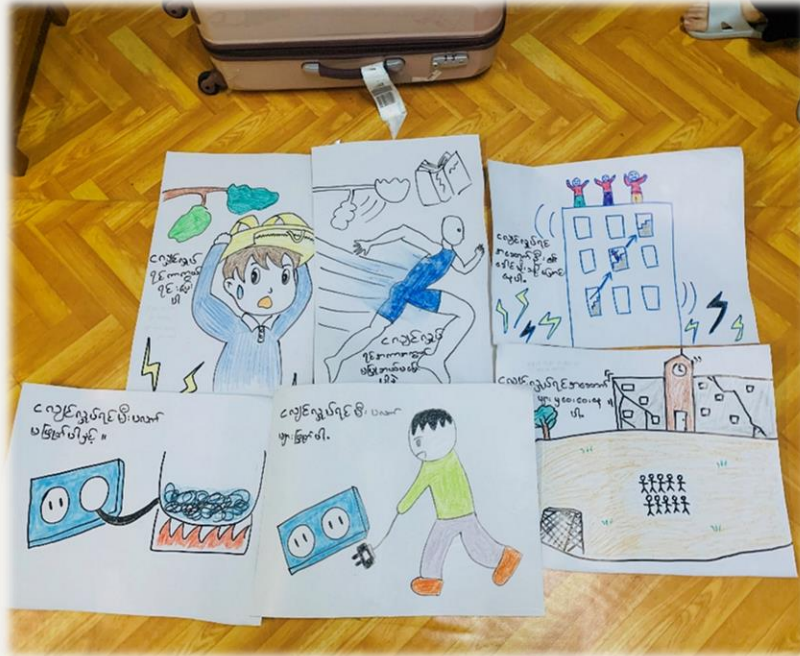
지진, 화재 보육준비



지진, 화재 보육을 준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다.
지진,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4주차 (지진,화재)

지진,화재 보육준비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으로 옳은 그림과 틀린 그림을 그려 아이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준비하였다.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으로 옳은 그림과 틀린 그림을 그려 아이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준비하였다.

4주차 (지진,화재)

지진, 화재 보육



아이들에게 지진과 화재 발생시 대피 방법을 포스터를 통해 설명해주며
아이들이 퀴즈로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보육을 하였다.

양곤강 방문

양곤강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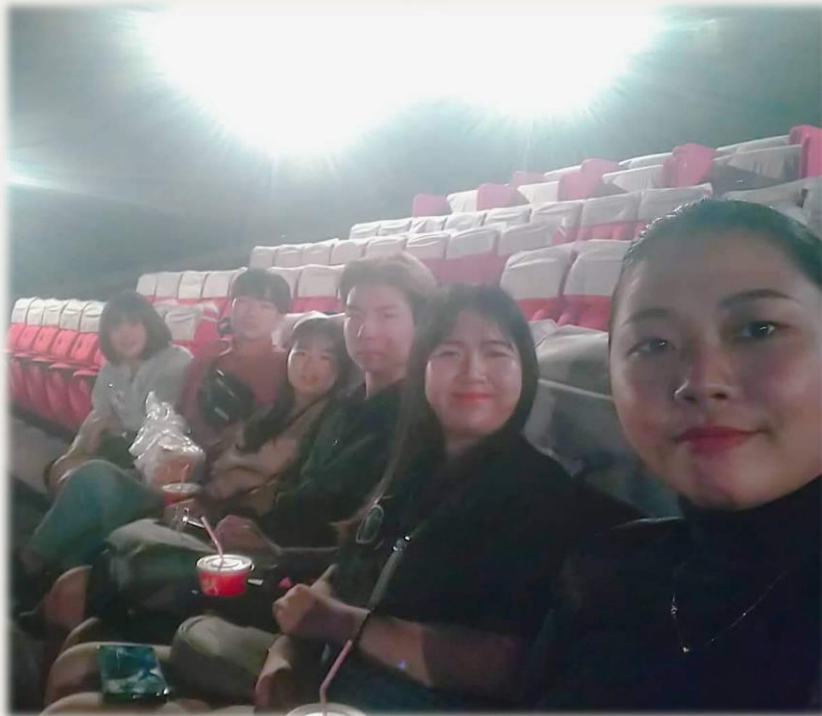
양곤강은 강자체보다 야시장이 유명하다고 한다. 평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먹거리도 다양해서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양곤강 시장에 들려 팀원들과 함께 생선구이와 여러가지의 해산물들을 맛보았다. 정말 한번 더 오고 싶게 만드는 맛이었다.

영화 관람

겨울왕국 관람



아띠 클럽멤버들과 함께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관람하였다. 그러나 자막이 나오지 않아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팀원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5주차

세계의 전통 복장(25 ~ 26)

5주차 보육을 기획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지난 번 보육활동이 끝나고 남은 색지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한 미술놀이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난 선배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교육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계의 전통 복장이라는 주제로 밑그림을 선정했다.

세계의 전통 복장(2019.11.25 ~ 2019.11.26)



알록달록 색지를 마음껏 찢어보자



종이를 붙여 전통 옷을 꾸미자



세계의 전통 복장(25~26)

한국, 몽골, 러시아, 영국, 베트남, 일본
여러 나라의 전통 복장을 비교해보았다



완성~!

나라마다 다양한 전통과 특색이 있음을 설명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옷을 꾸밀 수 있도록 했다. 풀 사용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종이에 미리 풀칠을 해두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은 테두리에 맞추어 종이를 찢는 것이었다. 그래서 붙이고 나니 밑그림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다양한 색이 모이니 멋졌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홈스레이 가는 길 (2019.11.28~ 2019.12.16)



내가 제일 잘 누워



바이바이 양곤

이주치 식량과 생활 용품을 모두 챙겨 새벽에 출발했다.
짐칸에 카펜더와 라온아띠 멤버까지 총 열 한명이 끼어 탔다.
매우 멀고 울퉁불퉁한 길이었다.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 필수.
중간에 타이어 펑크로 몇번 멈추기도 했다.

홈스테이 가는 길 (2019.11.28~ 2019.12.4)



중간 경유지 깨야



진수성찬

밥을 먹기 위해 중간 경유지가 필요했다.
양곤 ymca 스텝들의 인맥을 총 동원하여 경유지는 총 세곳이었다.
정말 맛있는 식사와 다양한 반찬들을 준비해주셨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익숙하지 않은 장거리를 달려와서 먹으니 더 맛있었다.

일리 일리 호수 (2019.11.28~ 2019.12.4)

산스테이트 관광 시작



입장료 10달러



나룻배 타고 수상가옥 구경



일리 일리 호수 (2019.11.28~ 2019.12.4)



기념품 가게



목이 긴 바타웅 부족 만나러

미얀마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이 시작되었다.
산스테인트 이곳은 거의 항상 날씨가 화창한 곳이라고 한다.
귀한 기념품도 팔고 바타웅 부족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문화도 엿볼 수 있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일리 일리 호수 (2019.11.28~ 2019.12.4)



일리 일리 호수 (2019.11.28~ 2019.12.4)



일리 일리 호수 (2019.11.28~ 2019.12.4)



전통 시장 (2019.11.28~ 2019.12.4)



전통 시장 (2019.11.28~ 2019.12.4)



미얀마에서 가장 맛있는 산누들

바라웅 마을 상점 (2019.11.28~ 2019.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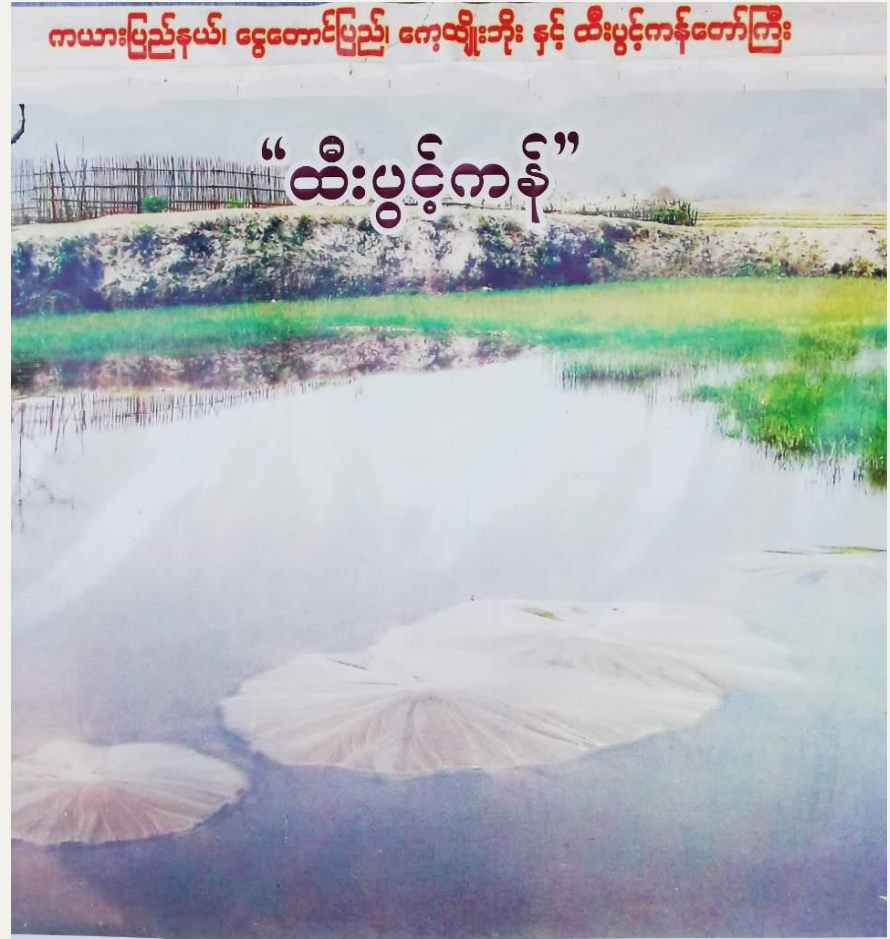
바라웅 마을 상점 (2019.11.28~ 2019.12.4)



바라웅 마을 상점 (2019.11.28~ 2019.12.4)



활화산 호수 (2019.11.28~ 2019.12.4)



활화산 호수 (2019.11.28~ 2019.12.4)



운이 좋으면 화산이 끓는 것을 눈으로 확인 가능

파고다 (2019.11.28~ 2019.12.4)



코끼리 타보기 체험 (2019.11.28~ 2019.12.4)



꺄로 (2019.11.28~ 2019.12.16)



웰컴 꺄로



고산지대라 춥다

짧은 관광이 끝나고 본격적인 생활을 위해 꺄로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해서 긴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아침과 밤에는 겨울 패딩을 입고 있어도 너무 너무 추웠다.
우리가 한국의 전기장판이나 보일러 난로에 많이 익숙해져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난로가 없는 곳에 어려움을 겪는 팀원도 있었다.
본격 생활담은 다음 12월 보고에 계속...

소감

미지존의 소감

오현진

11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곳을 다녀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방콕과 여러 관광지를 다녀서 기분전환을 한 만큼 더 열심히 앞으로의 아띠프로젝트에 임하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홍세현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안소연

많은 곳을 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진진한 일 또한 많았다. 11월의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남은 한 달 역시 그럴 것 같다. 설렘을 느끼되 마무리 역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신유정

11월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비자트립으로 갔다 온 방콕과 홈스테이 장소인 껀로를 다녀오으로써 지루했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하루하루가 소중한고 더 나아진 기분과 마음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1월에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행복했다. 남은 기간동안 행복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구건모

남은 한 달 무사귀국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지내야겠다.



**미지존 모두 남은
2개월도 앞으로 이렇게
웃으며 보람차게 지내자!**

감사합니다.
